

# 유해물질 방치한채 폐업해도 환경부는 ‘깜깜이’

### 광주·전남 업체 3곳중 2곳 염산 등 그대로 두고 폐업신고만 감사원 적발 후 진상 파악 나서 과태료 부과·경찰 고발 조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유해화학물질을 방치해둔 채 물레 문을 닫았지만 관계기관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한 사업장내에 유해화학물질이 방치될 경우 유출 등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유해화학물질 폐업사업장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

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국세청에 폐업신고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광주·전남 업체는 총 3곳이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사안으로 전국에서 9개 업체가 적발된 가운데 심지어 광주·전남 3개 업체 중 2곳에서는 여전히 유독물질인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이 발견됐다.

지난 2018년 8월 국세청에 폐업신고한 한 합평의 한 알루미늄 제조 업체는 취급하던 3t 분량의 수산화나트륨을 공장 내 저장탱크에 그대로 둔 채

폐업했다. 일명 양젓물이라고 부르던 유해화학물질이 대량 방치된 셈이다. 이 업체는 폐업 전 유해물질을 모두 폐기하고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진상을 파악해 지난 8월 현장 점검 후, 폐업한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014년 3월 폐업한 광주시 첨단동의 한 제조 업체에는 염산 10t 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0월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이를 처분하지 않고 몰래 폐업했지만 환경부 등은 업체가 국세청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

로 이들 폐업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않고 폐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영업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 의원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환경부에 폐업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처리되지 못한 유해화학물질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보조 배터리도 재활용 됩니다”

### 환경부, 폐전자 분리배출 홍보

“보조배터리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용 보조배터리(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를 포함한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10일부터 전국 지자체 대상 폐전지류 분리배출 홍보물(가정·사업장용 포스터)을 배포한다.

홍보물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완구류, 소형가전(노트북 배터리, 충전용 보조배터리 포함)에 내장된 전지류를 분리해 폐전지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라는 내용을 담겨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지류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배출해야 하고, 유해물질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전지류에 붙어있는 배선 등을 임의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여건 조성과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 연말까지 추진

한국환경공단 호남환경본부(본부장 진효연)는 10일 “코로나19 상황 속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따라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알리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일회용품·택배 포장재 등 재활용품이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4%나 증가해 그 어느 때 보다 올바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역민 856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고용, 광주·전남 공동주택 입주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색페트병 라벨 제거, 택배 박스 등의 테이프 제거 및 이물질 문은 재활용품 배출요령 등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 안내하고 있다.

호남환경본부는 이달 안에 자원관리도우미를 300여명 추가 배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 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가을철 산불 진화 훈련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자체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사무소는 이날 자체 산불진화 훈련과 함께 가을철 산불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 장비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영화 보며 힐링하세요”

### 동구, 치매환자 문화향유 기회 제공

광주시 동구가 치매환자와 가족이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도란도란 힐링’ 문화체험을 추진했다. ‘도란도란 힐링’ 문화체험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화체험은 광주 영상박물관에서 한국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관람한 뒤 각자 소감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치매환자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인지 자극을 유도하고, 치매가족 간 정보교류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코로나19에 취약계층 아동 돌봄 ‘사각지대’

### 광주·전남북 55명 등 전국 988명 하루 한끼 식사도 못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10일 시민사회단체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따르면 지난 8월 10~24일 광주와 전남·북 55명을 비롯, 전국 아동·청소년 98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루에 한끼 식사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하루 중 식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하거나 1회에 그친다고 한 아동·청소년은 3.54%(35명)로 조사됐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응답자의 61.5%는 저체중(36%)이거나 과체중·비만(25%)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균형한

영양 섭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주일간 과일을 한 번도 못 먹거나(15.2%) 한 번 먹은 아동·청소년(16.1%)도 적지 않았다.

급식지원카드를 받는 아동·청소년 중 22.9%는 일주일에 6번이나 편의점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등으로 식사를 때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나홀로 지내는 일도 많아졌다. ‘평일에 성인이 집에 혼자 있다’는 응답은 35.5%였는데, 이중 41.6%가 주중 5일 내내 부모나 어른 없이 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사각지대 청소년들에 월경용품 1만여개 지원 광산구청청소년문화센터

광산구청청소년문화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 월경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지원했다.

10일 광산구청청소년문화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첨단2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각지대 청소년 64명에게 월경교육을 진행하고 월경용품(1만 600개)을 전달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는 한편, 광주를 비롯 전국 8개 시도의 900여 명의 여아들을 위한 월경용품 3000만원 상당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와 ‘선데이토즈’의 ‘애니팡3’ 이용자와 함께하는 ‘기브 포 걸스(Give for Girls)’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지원이 된다.

광산구청청소년문화센터 신혜연 센터장은 “광주 지역 사각지대 여자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지원을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건강하게 성 건강권과 월경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